

선바이오텍, 신약개발 국책사업자 선정

화장품기업 한국콜마의 자회사 선바이오텍이 천연물 신약 개발 국책사업 연구자로 선정됐다.

한국콜마는 자회사 선바이오텍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생약 이용 환자용 식품 및 천연물신약 개발> 연구에 대한 국책사업자로 선정됐다고 8월8일 발표했다.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대학교와 공동으로 2009년 1월까지 진행되며 연구비 5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선바이오텍은 2004년 2월 한국콜마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민·관 합작 형태로 설립한 연구소기업으로 한국콜마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8/08>